

보도시점 2024. 4. 14.(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4. 4. 12.(금)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 추진

- 녹조 발생 예방 위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유출,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 살포 및 불법 투기 등 중점 점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로 가축분뇨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 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액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주요 수질오염원이 된다”라며, “녹조 발생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양우근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박춘규 (044-201-7078)
			사무관	한상우 (044-201-7076)



□ 추진 배경

-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을 점검

□ 점검기간 : 2024. 4. 15. ~ 6. 28.

□ 점검기관 : 시·도(주관), 유역(지방)환경청, 시·군·구 환경·축산부서 등

□ 점검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 하천(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 우선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가축분뇨 또는 퇴비 등을 하천 주변, 공유지 등에 야적·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출하거나 유출 우려가 있도록 하는 행위

< 야적 퇴비 부적정 보관 사례 >

침출수 발생



부적정 보관(덮개 미설치)



하천 인근 야적

-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를 생산·사용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불법 투기 하는 행위